

5호 천 테 마 독 서

"행운"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행운이와 오복이> 김중미 / 책읽는곰

부모님의 별거로 아빠와 살게 된 행운이는 오복이가 사는 동네로 이사했어요. 학교의 전파였던 오복이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행운이의 껌딱지처럼 따라다녔고, 오복이를 외면할 수 없던 행운이는 오복이의 뒤치다꺼리를 자처했어요. 다시 마주친 오복이와 우여곡절 끝에 절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행운이는 오복이와 지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운의 mama 무치> 프라우케 앙겔 / 씨드북

맞은편에 이사 온 박사 mama 무치와 릴리오는 진지한 대화를 하며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비밀을 하나 둘 털어놓게 되고, 릴리오 아빠 군나르의 심상치 않은 일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어린 릴리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용기 있는 어른으로서 그녀 다운 방식으로 말이죠. 행운의 mama 무치는 어떻게 릴리오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5호 천 테 마 독 서

"행운"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행복을 파는 행운 시장> 안민호 / 내일을여는책

단팍 친구 빈이와 우태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형 마트의 임원이던 우태 아빠와 청소부로 일하는 빈이 할머니가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관계 덕분에 아이들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도저히 이 상황을 풀지 못할 것만 같아요. 우태와 우태 아빠는 모두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과연 빈이와 우태의 우정은 물론 모두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행운당고의 비밀> 김현주 / 딱지

동희는 빗쟁이가 된 아버지 때문에 명동에 있는 미즈당고 가게로 팔려옵니다. 일본인 노부코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동희는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온갖 일을 하게 돼요. 어느 날, 포춘쿠키처럼 당고 안에 자신의 희망사항인 '비밀의 방으로 독립'을 적어 내는데 하필 독립이라는 글자만 남게 되어 노부코 할머니가 엉뚱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를 감시하게 된 동희는 할머니의 낯선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할머니의 낯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5호천테마독서

"행운"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행운 바이러스>
최형미 / 킨더랜드



이게 웬일일까요? 허탕친 사촌들과 달리 제훈이는 한 판 만에 인형을 뽑고, 두 번이나 연달아 뽑았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 반 친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제훈이도 이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아요. 관심이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훈이는 인형 뽑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뽑기방에 경찰이 찾아와 인형 뽑기 기계의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제훈이는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요. 제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기 위한 도끼여야만 한다."

- 보즈헤스 -